

대림 제 4주일 2007년 12월 23일 (가해)

강론 ...

의로운 사람



김교동 신부
(토율동 성당)

주님의 성탄을 앞두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경위와 함께 대림
의 현장에서 구세주의
길을 가장 충실히 예비
한 요셉성인을 만납니
다. 복음은 그를 의로운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

니다. 이는 곧 “하느님 앞에 서있기에 합당한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기에 성인은 마리아의
정결하신 배필이며 예수님을 기르신 아버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복음에서 성모님의 잉태 소식을 접한 요셉성
인의 반응과 태도는 감정적이고 인간적인 판단
이 아니라 신앙과 사랑이 우선하는 판단이고 처
신이었습니다. 성모님의 잉태 소식을 접한 요셉
성인께서는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낼 생각
이 없었으므로 남모르게 파혼하기로 마음을 먹
었습니다. 바로 모든 문제들 앞에서 사랑으로
대처했습니다. 자신의 처지보다 상대의 처지와
입장을 먼저 헤아리고 배려하는 사랑의 마음이
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한 잉태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 남모르게 파혼하기로 마음먹은 자신
의 생각을 거두고 천사가 일러 준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는 모습에서 자신의 생각과 입
장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과 섭리에 기꺼이 응답

하는 참 신앙인의 전형과 모범을 봅니다.

이러한 하느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인간의
자세는 믿음입니다. 믿음만이 두려움을 몰아내
고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받아
들여라. 장차 태어날 아이를 통해 나의 구원을
드러내리라”. 요셉성인은 하느님의 섭리를 믿
음으로 받아들이는 인간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성인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느 하느님의 사랑의 신비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한 인간의 협
조를 얻고자 하십니다. 무엇이나 하실 수 있는
분이 당신 마음대로 하지 않고 그토록 큰 구원
역사를 사람에게 협조를 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 하느님 구원의 역사는 오롯이 당신의
뜻을 받드는 의로운 한 인간을 통하여 시작됩니
다.

이제 곧 대림절 기다림의 시간이 채워지고 주
님의 성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도 요셉성인
과 같이 내 뜻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
어내는 일에, 그리고 묵묵히 믿음과 사랑으로
말은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대림의 여정에서
또 하나의 의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
느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당신을 현존
코자 하십니다.

하느님의 은혜

최 용준 신부
뉴욕 S.I 본당 주임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생각해 주시며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보살피 주십니까?”(시편 8,4)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체험은 각기 다르다. 환희와 기쁨에서 출발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되는가 하면 고통과 쓰라림 속에서 절망으로 변하기도 한다. 타고난 환경이 천차만별이듯 인간의



삶도 다를 수 밖에 없으나 모두가 움직일 수 없는 숙명처럼 어깨를 짓누른다. 사람의 마음이 흐르는 세월속에 세상을 통달해 나가면 좋으련만 운명처럼 다가온 삶의 현상이 체험의 폭을 좁혀 놓으니 때늦은 후회와 한스러움도 이해는 간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억울해 할 일도 아니다. 삶의 길이 다르다 해서 인간의 조건이 변한 것도 아니다. 모든 이가 가야 할 운명이 있는가 하면 감수해야 할 숙명도 있다. 가슴속에 고인 동병상련의 정이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다. 인간의 공통된 체험은 아무래도 아쉬움이고 쓰라림이다. 기쁨과 환희가 간간이 섞여 있기는 하지만 슬픔이라는 바탕색을 어찌할 수는 없다. 단조의 애절한 선율처럼 인생은 그렇게 가는 것이다.

인생을 환희와 기쁨으로만 받아들이면 안 되는가. 보잘것 없고 저주받은 삶이라 비관하

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안되는가. 하느님께서 주신 생명인데 은혜스러움도 있을 법하다. 고통과 쓰라림이 크다 해서 하느님을 찬양 못할 바는 아니다. 현실의 나락에서 올라오는 신

음소리 기막혀도 그분의 거룩하심을 해치진 못한다. 인생이 괴로워도 하느님을 생각하면 송구스럽기 그지없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생각해 주시며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보살피 주십니까?” 인생의 괴로움을 몰라서 드리는 찬양이 아니다. 한 때 받은 축복 때문에 드리는 보은의 마음이 아니다. 인생의 병고와 괴로움을 알고 죄의 사악함을 아는 이의 고백이다. 보잘것 없는 인생에 쏟아지는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 앞에 그저 무릎 꿇고 빌고 싶은 이의 고백이다. 죄의 용서 때문만도 아니다. 그분에게서 나온 사랑의 불꽃이 가련한 이의 심장을 꿰뚫었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사랑에 데인 자는 그 뜨거운 은혜를 감당하지 못한다. 단지 감사를 드리고 찬양하되 그분의 엄위하심을 기릴 뿐이다.

그림 : 박종구 (바드리시오)

체벌과 달초

체벌에 대한 사례가 언론에 자주 등장한다. 보도 내용만으로는 모두 도에 지나친 것들이어서 부정적 모습만 부각되고 달초의 의미는 찾아볼 수 없다. 체벌이라는 개념 속에는 분명 달초도 포함될 터인데 세상 사람들은 몇 가지 사례만을 통하여 '인격을 훼손하는 벌'만 생각하고 '가르침의 회초리'는 조금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

체벌과 달초는 구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체벌은 금기 사항을 벗어난 행위에 대한 처벌이고, 그것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물리적 행위이다. 반면 달초는 개인의 인격 성장을 돕기 위한 지도 방법의 하나로, 자녀나 학생을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 사랑이 전제되는 물리적 처방이다.

폭력적 체벌은 버려야 할 유산이지만 교육적 달초는 다음의 몇 가지 원칙만 지킨다면 명약이 될 수도 있다.

첫째, 달초는 서로의 사전 약속 아래서 실행되어야 한다. 받는 쪽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전 '약속에 따른 달초'를 수용할 때에만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회초리는 폭력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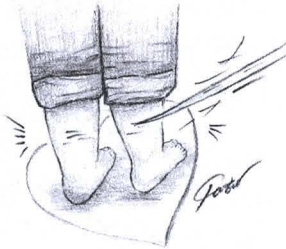
둘째, 달초는 가하는 쪽에서 더 부담을 져야 한다. 명분을 찾아 용서하려고 고심하고, 약속보다 덜한 달초를 내리도록 고민하고, 자칫 체벌이 되지 않도록 감정을 자제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 사

랑하는 마음일 것이다.

셋째, 달초 후에는 당한 쪽이나 가한 쪽이 서로 화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야 한다. 달초가 서로의 가슴을 열고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할 때에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고, 살아가면서 두고두고 달초를 내린 부모나 선생님께 고마움을 느끼게 할 수 있다.



구현희(스테파노)
(정주교 교사)



교육 현장에서 “교육을 포기할지 언정 체벌은 하지 말라.”는 경영자의 말을 자주 듣는다. 달초를 수용하지 않고 체벌로 싸잡아 모든 교사를 억박지르는 요즈음 세태에서 물의를 빚지 말라는 충고이다.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처신을 교정받

지 못한 학생일수록 당사자나 학부모 모두 교사들의 달초를 체벌로 몰아붙여 곤경에 빠뜨리는 일이 종종 있기 때문이다.

나도 십여 년 전부터 학생들에게 매를 들지 않고 지내왔다. 매를 들때보다 오히려 흥분한 심정이지만 적극적으로 지도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을 때가 자주 있었다.

달초까지도 필요치 않은 성숙한 교육환경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이다.

입당송 이사 45,8

하늘아, 위에서 이슬을 내려라. 구름아, 의로움을 뿌려라. 땅은 열려 구세주를 싹틔게 하여라.

제1독서 이사 7,10-14

화답송 시편 24(23),1-2,3-4,5-6(◎ 7과 10, 참조)

◎ 주님께서 들어가시니, 그분께서 영광의 임금이시로다.

제2독서 로마 1,1-7

복음 환호송 마태 1,23

◎ 알렐루야. 보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복음 마태 1,18-24

영성체송 이사 7,14 참조

보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사랑짓는 요십이' 창립미사 및 발대식

사랑짓는 요십이(지도신부=김봉술 신부, 회장=박종구)는 지난 12월 15일(토) 오후 4시 교구청 4층 강당에서 창립기념미사와 발대식을 가졌다. 사랑짓는 요십이는 노동하는 사람들의



벗인 성요셉의 모범을 본받아 지역사회와 교회의 가난한 사람, 홀로 사는 어르신, 공소와 복지시설, 이주민과 새터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개보수를 위하여 봉사하고자 하는 정신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로 2006년 김제 용지 신암공소 방수공사를 비롯 2년여 동안 여러 곳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해왔다.

이날 미사를 집전한 이병호 주교는 "하느님께서 특별하게 보내신 곳에서 열심히 열정을 불태우기

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또한 박종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어려운 상황을 만났지만 그때마다 기적적으로 일이 해결되어 나가는 것을 볼 때마다 하느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

다"며 "아직도 자금과 일손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니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날 미사 중에는 사랑짓는 요십이를 상징하는 공사현장의 여러 도구들의 봉헌과 2년여 활동사진을 상영하는 시간을 가졌다. 미사 후에는 회원들과 내빈들이 함께 하는 가운데 조출한 자축연을 갖고 앞으로의 적극적 활동을 다짐했다.

김동욱 기자

● 사랑의 집 세례식 및 작품 전시회

전주 사랑의집은 지난 12월 12일(수) 장상원 사회사목국장신부의 집전으로 세례식을 거행했다. 이날 세례를 받은 원생은 모두 11명으로 지난 2월부터 10개월 동안 교리를 공부했다. 일반인들보다 교리공부 하는 동안의 어려움은 컸지만 세례식에 임하는 원생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또 그동안 여러 가지 치료수업을 통해 만 들었던 작품들을 전시, 자신의 작품 앞에서 기뻐하는 원생들의 모습이 보기 좋았다. 전주 사랑의 집은 부랑인 복지시설로 자원봉사나 후원으로 도움을 주실 분들은 063-253-8393으로 문의.

김동욱 기자

● 송천동 성당 사도들의 모후 Pr. 1,000차 주회합

송천동 성당(주임=나궁렬 신부) 치명자의 모후 꾸리아 소속 사도들의 모후 브레시디움(단장=김은식)이 지난 12

월 15일(토) 제1,000차 주회를 가졌다. 1988년 '하늘의 문' 브레시디움에서 분가되어 남성 신자들의 신앙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즐거움의원전' 브레시디움을 분가시키고 현재 9명의 남성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12월 11일(화) 저녁미사후 송천동 성당(주임=나궁렬 신부)은 레지오 마리에 연차 총친목회를 개최했다.

46개 브레시디움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막극, 수화, 율동, 샅풀이 등 장기자랑을 통하여 친목과 화합을 다졌다.

장성조 기자

● 신태인 성당 소록도 방문 및 음악 피정

신태인 성당(주임=김봉술 신부)은 지난 12월 14일(금) 대림절을 맞아 사랑 나누기 첫번째 실천으로 한세병 환우들이 살고 있는 소록도에 김치를 전달했다. 매년 해오던 행사이지만, 올해는 신부님이 함께 동행하여 더욱 뜻깊

자연이 준 생명 한의원

비염, 아토피, 비만, 체질개선
진재호(빅토리노) 오서진(마르가리타)
문의 : 063-253-2599

최고의 전국 꽃배달서비스 진선미 꽃집

범근배(방지거) · 박선자(루시아)
중화산동 빙상경기장~도청사이
☎ 222-0004

의료법인 영 의료재단(한방·양방 협진) 익산효양병원

저렴한 요양비로 어르신을 내 가족처럼 모시겠습니다.
행정실장 송인호(파비아노)
☎ 016-335-8175
상담전화 : (063)858-9998
주소 : 익산시 모현동1가 245-5

결혼 정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이종관(도민고)
☎ 016-9612-9380
(063) 241-9380
- 교우문 특별우대 -

성지순례

127차 2008년 1월 2일~12일(0박 11일)
이집트, 이스라엘, 이탈리아, 바티칸
128차 2008년 1월 10일~23일(13박 14일)
이집트, 이스라엘, 이탈리아, 바티칸,
아제시, 루르드, 프랑스, 파리
2008년 1월 저렴한 경비, 보람된
여정으로 은총속에 출발합니다.
전일관광 조선(안토니오)288-6666

젼인아트

전진아 (실비아)
한국정부자격보석감정사
미국GIA 다이아몬드 감정자격
미국MV보석평가사 직영
462-7777 www.G1.co.kr

효사랑전주요양병원

병원장 박진상(루카)
입원상담 063)278-8288
서노송동 중앙성당 맞은편
효사랑가족요양병원
병원장 김정연(안젤라)
입원상담 063)711-1111~3
효자동 효자프라자 옆

대학병원 처방 전문 대학종로약국

약사 정귀진(요셉)
배석환(엘리아)
한중욱(크리스티나)
전북대학병원 제2주차장 앞
☎(063)274-5425, FAX274-5424

김진소 신부 고희기념 논총집 봉정식

호남교회사 연구소장 천산 김진소신부 고희기념 논총집 <한국사회와 천주교> 봉정식이 지난 12월 15일(주일) 오후 2시 완주군 비봉면 내월리 천호마을 호남교회사 연구소 천산재 마당에서 거행됐다.



미와 역사 문화적 의의'를 시작으로 조광교수의 '유항검 일가와 치명자산' 등 각 교회사 연구소 관계자들과 학계 교수 등이 집필한 총 26편의 논문이 제1편 '그 땅의 사람들', 제2

편 '천주교의 한국문화 만들기', 제3편 '믿음의 원형을 찾아서', 제4편 '한국 교회사 사료의 연구' 등 네 편으로 나뉘어 실려 있으며, 그 외 원문자료로 구한국 외교문서인 '강경포 천주교 분규사건'과 '지도 천주교 분규사건' 등 두 편이, 별도로 김진소가 걸어온 길 일부를 스스로 정리한 '천산 칠십 자술'이 수록되어 있다. 김진소 신부는 답사를 통해 "교회사 연구를 하면서 의형제나 자식같이 함께해준 많은 은인들이 있으며, 이들을 위해 100살까지 살면서 연구소 마당이라도 쓸 각오" 라고 말했다.

이러면 기재

이번 고희기념 논총집 <한국사회와 천주교>에 실린 논문은 김진소신부의 '치명자산의 종교적 의

의 시간이었다. 가져간 떡과 김치를 나누어 받는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감사의 뜻을 전해 방문한 신자들의 마음은 기쁘기만 했다. 한편 지난 12월 16일(주일) 교중 미사 후 음악 피정을 열었다. 노래로 시작된 이번 피정 인도는 김영미 아가다 자매로 자신의 체험을 통해 '나눔의 신비'와 '항상 기뻐하라'는 주제로, 찬미노래와 함께 진행됐다.

이선숙 기재

봉동지역 불우이웃돕기에 나섰다.

지난 12월 12일 가톨릭사우회원들은 봉동 성당(주임=장상호 신부)을 방문하여 150만원 상당의 난방용 등유 전달식을 가졌으며, 봉동성당에서 추천한 독거노인세대를 직접 방문해 사랑의 쌀 30여 포대를 나눠주었다. 또한 이날 사우회원들은 동산동에 위치한 프란치스코 지역아동센터(센터장=마르타 수녀)에도 150만원 상당의 전교 및 교육용으로 활용할수 있는 신형 노트북을 기증했다. 이어 아미고의집 아이들을 초청하여 방한용품을 성탄선물로 주고 저녁식사까지 챙겨 일일 산타의 역할도 했다.

이홍민 기재

● 현대자동차 가톨릭사우회 지역사회 이웃사랑 실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가톨릭사우회(회장=정용표)는 연말을 맞이해 행복한 겨울나누기의 일환으로 회사 인근

<p>강성호 피부과 강성호(이나시오) 박민정(루비나) ☎(063)255-8700 롯데백화점 옆</p>	<p>수액 · 수세미즙 참살이 수세미 농원 기관지, 천식, 알레르기비염, 아토피 유기농 재배(무농약 인증) 박미나(세실리아) 063)255-8090, 010-6536-1117</p>	<p>She's Clinic(쉬즈성형외과) 디에프 피부비만성형network 전주점 전신지방흡입 · 지방이식 · 중증여드름 · 비만 · IPL 원장 김영덕(라과엘) 김혜영(에스텔) 문의 228-4232 / 위치 : 남전주전화국사거리(구, 우수연성형외과)</p>
<p>김현숙 안과 (전 한빛안과 원장) 안성형수술 (만명이상 경험) 사시 및 소아안과 수술 (1천여명 경험) 객좌용 아우구스티노 / 김현숙 레지나 Tel(063)226-1116 전주시 중화산동 본병원 옆 건물 3층·진료실, 4층·수술실, 안경원</p>	<p>2008학번(안동)가톨릭상지대학 신인생 모집 '인동교구에서 운영하는 전국 유일의 가톨릭전문대학' ·정시 1차 : 12. 20(목)~2008. 01.04(금) ·모집학과 안내 : http://www.csangji.ac.kr 참조 ·입시문의 : 대외협력처 054)851-3021~2 FAX) 054)851-3009</p>	<p>2008 박성환전(파산)생애모임 *매학기 등록금의 30% 장학혜택(야간) ●지원지역 : 고교졸업이상(수능무관) ●모집기간 : ~2008.1.18(금) ●문의 : 김석희(요한보스코)011-671-6196 담당교수 : 010-3937-9022</p> <p>군산 햇님토이 완구점 크리스마스완구 대바겐세일 전동차 및 완구전품목 각종 추리용품, 나무 할인판매 군산 내운동 KT전화국 앞 / 문의 : 47-1863</p>



교구장 일정

- 성탄 대축일 밤미사
12월 24일(월) 중앙
- 성탄 대축일 낮 미사
12월 25일(화) 오전 10시 30분 삼천동
- 외국인 미사
12월 25일(화) 오후 7시 30분 우전
- 동산동 도서관 축복식
12월 28일(금) 오후 2시
- 덕진성당 바오로 성서대학 3회 졸업미사
12월 30일(주일) 오전 10시 30분

미사·행사·모임

- 이주노동자 다문화가정 성탄행사
12월 25일(화) 오후 2시 우석대 강당
- 천동면 징검다리
12월 27일(목)~28일(금) 해월리

- 전주교구 은혜의 밤 철야기도회
12월 28일(금) 밤11시~새벽 4시 전동
주관: 전주교구 성령쇄신 봉사회
-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월례미사
1월 5일(토) 오전 10시 30분 송천동

교육·피정·연수

- 교육국 봉사자 송년 피정
11월 28일(금)~29일(토) 해월리
- 미혼 젊은이를 위한 40차 선택주말
2008년 1월 11일(금) 오후 7시~
13일(주일) 오후 5시
장소: 나바위 피정의 집
문의 및 접수: 230-1021 가정사목부
선택대표: 011-1778-6618
FAX: 230-1063

기타

- 제 49차 세계성체대회
한국 천주교 공식 참가단 모집
한국대표 최기산 주교님과 함께하는
공식 성체 경배 여정
일시: 2008년 6월 14일(토)~
26일(목) 12박 13일
장소: 캐나다 퀘벡시
주제: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하느님께서
주신 성체
대상: 만 18세 이상 신자
참가비: 355만원
(퀘벡 대회본부 등록비 포함)
신청방법: www.cbck.or.kr 참조
신청마감: 2008년 1월 31일까지(선착순)
문의: 02-460-7683, 7515
cei2008@cbck.or.kr

새 가톨릭센터 특별 신축헌금(12/9~12/15)
재속프란치스코회 전주지구 형제회 1,000,000

새 가톨릭센터 신축기금 모금 현황

(2007년 12월 15일 현재)

- 새 가톨릭센터 신축기금 배정액 100% 납부한 본당 : 줄포선교, 문정, 상삼례, 황등, 삼례, 장계, 옥봉, 만경, 둔율동, 진안, 소양, 영등소리, 대야, 금암동, 장수, 나바위, 고창, 오수, 조촌동, 여산, 서학동, 순창, 니운2동, 신흥, 고산, 용안, 원평, 숲정이, 부송동, 어양동, 신태인, 우아동, 수류, 부안, 봉동, 쌍교동
- 신축기금 배정액 90% 이상 납부한 본당 : 중앙, 나운동, 신동, 서신동, 시기동, 월명동, 오룡동, 영등동, 삼천동, 아중, 지곡, 복자, 인후동, 도룡동, 덕진, 우림, 요촌, 노송동, 용진, 팔마, 우전
- 신축기금 배정액 80% 이상 납부한 본당 : 팔복, 무주, 임실, 함열, 금마, 솔내, 주현동, 송천동, 효자동, 미룡동, 호성동, 서일, 모현동
- 신축기금 배정액 70% 이상 납부한 본당 : 소룡동, 연지동, 화산동
- 신축기금 배정액 60% 이상 납부한 본당 : 송학동, 평화동, 창인동, 용머리, 마동

단위: 천원

구분	예산	납부액	비율
본당	15,000,000	13,132,268	87.55%
사제단	1,000,000	1,438,444	143.84%
개인및 타지역(특별헌금)	1,500,000	824,560	54.97%
수익사업	500,000	232,824	46.56%
합계	18,000,000	15,628,096	86.92%

◆ 새 교구청 사제관
성당에서 성무일도를
겸한 새벽 6시 미사
(월~토) 신자들도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겨울성소피정

중등부: 2008년 1월 28일~29일
고등부: 2008년 1월31일~2월 1일
장소-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참가비 2만원)
대학생 및 일반부: 1차)2월 20일21일
2차)2월 23일~24일
장소-대전 목동 수련소(참가비-2만원)
신청 및 문의: 02-6364-5500 / 010-7141-5549

송년 신약통독 피정

- 일시: 12.29(토)~2008.1(화) 낮 12시
- 장소: 광주 명상의 집
- 문의: 062-571-5004, 8004

제43차 한국티스타 지도자 과정 워크숍

주관: 한국티스타
대상: 청소년 성교육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
(선착순 50명, 당일 저수 안됨)
일시: 2008년 1월 8일~11일 / 회비: 15만원
장소: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문의: 02-755-2629
www.teenstar.or.kr / kleenstar@hotmail.com

시청각통신성서교육원 학생모집

· 우편과 인터넷을 이용한 신구약성경
입문과정(2년)
· 자격: 고졸정도의 학력소유자(교과초월)
· 원서교부: 인터넷, 전국 바오로딸,
성바오로 서원
· 접수: 2008년 1월 20일까지
(www.paulineible.or.kr)
· 문의: 028440-819-824 성바오로딸수도회

남전주 지구 본당 소식

노송동

주임신부: 282-9663 사무실: 282-9661 주임신부: 나준성
F A X: 282-9664 수녀원: 282-9662 서목회장: 한기영
E-mail: n422@chol.com

- ◎대림절 사랑의 성금 접수: 사무실
- ◎본당 신부님 영명축일: 26일(수)
 - 축하식 및 축하연: 25일(화) 성탄 낮미사 후
 - * 신부님의 영육간에 건강을 위하여 많은 기도 바랍니다.
 - * 물적 예물은 부투를 이용바랍니다.
- 1. 성탄 대축일 미사시간: 24일(월) - 새벽미사 있음.
성탄 밤미사: 후 9시 (구유경배 예물은 부투를 이용바랍니다.)
25일(화) - 전 9시, 전 10시 30분, 저녁미사는 없음.
- 2. 감사헌금: 송순이(엘리사베) - 10만원 *감사합니다.
- 3. 초, 중고 성탄 예술제: 24일(월) 후 6시 4. 성탄 제대꽃 봉헌받습니다: 접수 - 사무실 이글라수녀님. 5. 송년미사: 31일(월) 후 7시 30분. 새벽미사 없음. 6. 자모회 상임: 2일(수) 후 7시 30분.
- 7. 축 혼인: 30일(주일) 후 12시 30분. 신랑 - 김준택(아우구스티노의 자) 김호민(토마스), 신부 - 주길전의녀 주소미
- 8. 한해가 저물어 갑니다. 07년 교무금 및 신축헌금 납부해주시고 08년 교무금 및 신축헌금 정성껏 신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9. 모임: ① 자비의 모후 꾸리아 - 23일, 교중미사 후
② 반회장 모임 - 4일, 전 11시 ③ 자모회 - 5일, 어린이미사 후
④ 천사의 모후 꾸리아 - 6일, 교중미사 후

문정

주임신부: 221-9182 사무실: 225-9100 주임신부: 김윤성
홈페이지: www.munjong.org F A X: 225-9101 서목회장: 조양봉

- ◎성탄절 맞이 제대꽃 봉헌받습니다. 사무실로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주는 본당신축 2차헌금 있습니다.
- ◎축 성탄 아기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리며 교우여러분 축복 많이 받으세요.
1. 금년도 교무금 완납해주시고 내년도 교무금도 신립해주시기 바랍니다.
- 2. 대림절 특강 ④(네번째): 23일(주일) 교중미사중
- 주제: 본당사회복지문제 - 강사: 장성일 신부님
- 3. 학사님(이가진안드레아)을 위한 영적예물을 23일까지 접수바랍니다.
- 2008년도 1월 17일(목)에 중앙성당에서 부제님으로 서품 받으십니다.
많은 기도 바랍니다.
- 4. 신축헌금: 이정숙, 김홍두 각 15만, 방옥선 20만 고맙습니다.
- 5. 감사헌금: 이중호 10만 고맙습니다.
- 6. 성탄절 미사 및 행사: ①성탄전야 밤미사: 24일(월) 밤 9시(새벽 6시미사도 있습니다). *서서필사자(신, 구약 전체) 시상이 있으나 대상자는 꼭 참석바랍니다. ②성탄절 미사: 25일(화) 전 6시, 전 10시(교중) 후 4시(어린이미사) ③초, 중고등부 성탄예술제: 25일(화) 후 6시, 많은 관심 바랍니다. 7. 2007년 송년 새해미사: 31일(월) 밤 11시~0시 30분
- 의미 있는 미사로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지난해 봉헌금: 1,021,100원 ■ 교무금: 6,355,000원
■ 2차헌금: 514,300원

복자

주임신부: 286-3453 사무실: 286-3455 주임신부: 방익성
F A X: 288-3455 수녀원: 286-3454 서목회장: 구본정

- 1. 금주 모임: ①꾸리아 - 오늘 교중 미사후
②반사회 - 오늘 교중 미사후
- 2. 축! 성탄 전례: ①행운권 주침 및 성탄예술제 - 24일(월) 저녁 7시 부터 ②성탄 밤미사 - 24일(월) 저녁 10시 ③성탄 대축일 미사 - 25일(화) 오전 10시 30분 *저녁미사 없음.
- 3. 성탄 행사에 신자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성탄예술제 및 행운권 주침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 4. 첫 영성체 교리시작: 08년 1월 2일부터
*대상자는 수녀님과 사무실에 신청바랍니다.
*첫영성체 대상자 부모 모임 - 오늘 교중 미사후
- 5. 예비 신자 모집: 예비신자 교리반에 많은 인도 바랍니다.
*입교식은 내년 2월 17일(주일)에 있겠습니다.
- 6. 전례 안내:
①금 주: 해설-김중호 독서-박종호부부 복사-정동민, 오교성
②자 주: 해설-유경희 독서-라경섭부부 복사-한희대, 조영삼
- 7. 감사 헌금: 박병교(안토니오) - 10만원, 가톨릭 다이제스트-3만원
■ 지난해 봉헌금: 1,066,500원 ■ 교무금: 1,586,000원
■ 2차헌금: 348,200원

평화동

주임신부: 232-5001 사무실: 232-5005 주임신부: 문규현
보좌신부: 232-5002 수녀원: 232-5004 보좌신부: 전보근
F A X: 232-5003 서목회장: 이계윤

- 1. 오늘 교중미사(10:30)는 가족이 함께하는 미사입니다.
- 2. 축! 성탄, 아기예수님 탄생의 축복과 은총이 온 누리에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미사 안내: 밤미사 - 24일(월) 저녁 9시(입체미사), 본일(25일) 미사 - 09시, 10:30(미사 후 친교 나눔 잔치), 저녁 7:30
*사랑의 나눔 돼지 저금통 봉헌 - 25일
- 3. 성탄 제대꽃 봉헌: 뜻있는 분 사무실에 접수 바랍니다.
- 4. 평화동, 덕진 성당 성가대 음악회: 28일 저녁
많은 관람과 성원 바랍니다.
- 5. 고3 및 취업생 피정 28일(금) 저녁 8시 ~29일(토) 오후 1시까지,
* 인터넷 주소창에 교구나 성당 이름만 치세요! 예) <http://전주교구> 또는 <http://문정성당>

상관

주임신부: 285-6654 사무실: 285-6652 주임신부: 전대복
F A X: 232-6652 수녀원: 285-6653 서목회장: 양주태
E-mail: sanggwancac@catholic.or.kr

- ◎세상에는 참 좋은분들도 많고 은혜 받을분도 많습니다.
성전건립 및 청산에 도움 주신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1. 성당청소구역: 12월28일 원신,산신,하신,소공동체
- 2. 교무금과성전신축헌금을 년말까지 봉헌하시어 개운하고
편안한마음으로 아기예수님과 새해를 맞이합시다.
- 3. 성탄전야미사: 24일(월) 저녁 8시
*12월 25일: 오전 10시미사
*월요일, 화요일 아침미사 없음
- 4. 2008년 새해 1월1일(화요일) 아침미사없음)
천주의 성모마리아 대축일미사: 오전 10시
- 5. 성탄 제대꽃 봉헌 바랍니다.
- 지난해 봉헌금: 1,117,000원

서학동

주임신부: 284-8307 사무실: 286-4929 주임신부: 주덕성
F A X: 232-9009 수녀원: 284-2276 서목회장: 유절갑
홈페이지: <http://www.seohak.net>

- ◎자세한 사항은 '본당 소식지' 참조
- ◎서학가족 실천운동 -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합니다.
- 1. 미사안내: ① 성탄 성야 미사 - 24일(주일) 후 8시 30분
② 성탄 대축일 미사 - 25일(월) 전 10시 30분, 후 7시
③ 송년감사 미사 - 31일(주일) 후 9시
* 성탄 후 평일미사는 중전대로 봉헌합니다.
- 2. 성탄절 나눔 잔치: 25일(월) 전 10시 30분 미사 후
- 3. 신자카드 발행: 개인별로 소지하시고, 신앙생활에 참조바랍니다.
- 4. 자모회 떡 판매: 23일(주일), 한 봉지 2,000원
- 5. 혼인 갱신식: 30일(주일, 성가정 축일) 10시 30분(교중미사) 중
거행

전동

주임신부: 281-0098 사무실: 284-3222 주임신부: 김윤태
보좌신부: 282-7245 수녀원: 282-9234 보좌신부: 소제나
F A X: 282-6232 유치원: 284-8347 서목회장: 김민중

- ◎매일 빛째 주간: 선교주간 "함께 가요, 우리"
- 1. 축! 성탄: 아기 예수님 탄생의 기쁨이 온 세상에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성탄 전례: 24일(월) 저녁 8시 1부- 어린이 발표회 및 제단체 성가 경연대회, 2부-빛의 예식 및 잠엄미사, 3부- 나눔잔치
25일 미사 - 오전 9시, 10시 30분, 저녁 7시
- 2. 축 세례: 21명의 세례 받으신 분들께 하느님의 자녀 됨을 진심으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3. 송년 특별미사: 31일(월) 저녁 10시, 2007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2008년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송년 특별미사에 많은 신자분들의 미사 참여를 바랍니다.
- 4.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1월1일은 의무 대축일입니다. 미사 시간은 주일과 같습니다.
- 5. 감사: 성전보수 및 감사헌금-박상근 바오로 10만원, 선진순 미카엘라 3만원,
■ 지난해 봉헌금: 3,064,800원 ■ 교무금: 17,736,500원

- 부도님들은 대상 자녀들이 꼭 참여토록 배려 바랍니다.
- 6. 장애인 돕기 자선 음악회: 주최 - 전북 이태리 음악연구회, 장소 - 평화동성당, 출연 - 평화동성당, 덕진성당 성가대.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7. 본당 보수 헌금: 이인순 - 30만원, 최광자, 조차중 - 각 10만원, 소재봉 - 5만원, 감사합니다.
- 8. 감사헌금: 김영주 - 10만원, 이영남 - 5만원, 감사합니다.
- 9. 금년 교무금, 교구청 신축헌금, 애령희비, 사회복지 후원금, 제대희비, 자모희비, 성소후원희비 연말까지 완납 해 주시고 내년도 분도 신립바랍니다.

감사의 글

공경하올 주교님,

주교님의 전주교구에서 보내주신 2006년도 예루살렘 성지복구비 40,367,740원을 잘 받았습니다. 주교님 교구의 그 기여(壽典)는 거룩한 땅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형제적 연대의 한 구체적인 표징이 됩니다.

저는 베네딕토 16세 교황성하의 충만하고도 자부적인 감사를 주교님과 주교님의 교우들에게 대신 전해드릴 수 있음을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교황성하께서는 즉위하신 이래로 줄곧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다른 성지들에서 살고 있는 형제자매들의 계속되는 어려움들과 필요들에 응답하는 특별한 선교의 중요성을 온 교회에 강조하여 왔습니다.

나아가 저는 이 기회에 우리의 온 교회와 저 자신의 개인적인 감사를 전주교구의 주교님, 신부님, 수도자, 교우님,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모든 구성원들에게 일일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온교회 구성원들의 그 의미 깊은 기여들은 진실로 살아있는 우리 교회의 현존을 가능하게 하고 보존시켜 줍니다. 또한 그 현존과 보존은 사목적이고 교육적이며 사랑의 동기들로부터 나오는 모든 범위들을 폭 넓게 망라시키고, 내재적으로 그 거룩한 땅들과 연관된 모든 경이롭고 종교적이며, 역사적이며 예술적인 모든 기억들도 다 포함하게 합니다.

주교님의 물질적 도움과 함께 주교님의 교구 공동체에서 보여주시는 끊임없는 기도와 영적인 선교의 모든 표현과 방법들은 틀림없이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우리 거룩한 교회의 이 지역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형제적인 축복과 사랑을 보냅니다.

교황청 동방교회 성성장관 대주교 레오나르드 산드리 서명

2007년 11월 8일

(제공 | 교구 사무처)

죽음에서 생명으로

기름이 범벅된 돌 틈 사이에 작은 계와 고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차마 어찌지 못하고 죽음을 기다리는 생명체를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름덩어리로 범벅된 소근리 갯벌에서 인간의 죄를 속죄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고 돌과 모래를 정성스레 닦았으며, 기름이 스며든 땅에서 닦아도 계속적으로 솟아나는 기름을 문혀내야 했습니다.

그동안 관계기관의 종사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로 서해안 일대의 기름제거가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많은 곳에서 우리의 손길을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탄생하시는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 시기에 죽어가고 있는 서해안에 생명을 되찾아 주는 손길에 함께 합시다.

전주가톨릭사회복지회는 서해안 기름제거작업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개별적으로 참여하실 신자들은 사회사목국으로 신청하십시오.

아 래

1. 본당별 참여시 : **태안군청(전화: 041-670-2644, 2647, <http://www.taeon.go.kr>)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2. 개인별 참여시 : 교구 사회사목국(284-5290, 230-1073~5)

가. 봉사기간: 2007년 12월 22일 - 2008년 3월 15일까지(잠정적)

나. 신청기간: 매주 목요일 오후6시까지(인원 조정으로 꼭 필요합니다)

다. 출발: 매주 토요일 시청 민원실 앞 오전 5시30분 출발 / 라. 도착시간: 오후 6시30분

※ 개인준비물: 식사, 장화, 고무장갑, 헌옷, 우의, 마스크

바다 바람이 많이 불어 따뜻한 복장 착용(내복착용 필수)